

2019년 11-1호

# KIET 경제산업동향

2019. 11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 차례 >

< 요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용	12
6. 수출입	13
< 부 록 >	
미국 민간소비의 호조 배경 및 향후 여건 점검 [ 한국은행(2019.10) ]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 요약 >

### □ 해외경제 : 미국 3분기 성장률 전기비 1.9%, 중국 전년동기비 6.0%

- 미국은 9월 실물지표들이 동반 감소하고, 체감지표들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경기 약화를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3분기 성장률도 전기비 1.9%로 하락
- 일본은 생산 등의 부진에도 소비가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크게 반등, 유로권도 역내 실물지표들이 동반 증가하고, 경기체감지수가 3개월 만에 상승
- 중국은 9월 내외 실물지표들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인 반면에, 지난 3분기 성장률은 통계 집계 이래로 가장 낮은 6.0%로 하락
- 10월 중순 이후 불확실성 영향으로 등락을 보인 달러화가 11월 들어 미·중 무역합의 기대감 등에 따른 美 금융시장의 강세 영향으로 강세 지속
- 유가는 10월말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으로 일시 하락세를 보인다,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과 미국의 원유 시추공 수 감소 지속으로 상승세

### □ 국내경기 : 3분기 실질GDP 전기비 0.4% 증가, 소비·투자 동반 부진

- 올 3분기 국내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세가 전분기보다 현저히 둔화되고, 건설투자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기비 0.4% 성장
  - 지난 9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생산이 감소하면서 3개월 만에 전월비 감소세를 보이고, 소비도 감소 전환, 투자는 전월비 증가세 유지

### □ 금 융 : 9월 기업대출 확대·가계대출 축소, 11월 초(11.1~11.8일) 금리 상승·원화 강세

- 9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이 전월 수준을 유지하고,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된 반면,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도 기타대출 등의 축소 영향으로 전월보다 축소

- 국고채(3년) 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일시 하락세를 보이다, 11월 들어 미·중 무역합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세로 전환
-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합의 기대감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강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전망에 따른 위안화 강세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

**□ 산업별 동향 : 9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

- 제조업생산은 전자부품과 자동차 등에서 감소세가 이어짐에도 기타운송장비와 반도체, 기계장비 등에서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0.2% 증가
  - 제조업ICT와 중공업에서는 증가한 반면, 경공업에서는 감소 지속
- 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과 도소매 등에서 감소하고, 보건·사회복지와 금융보험, 정보통신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1.0% 증가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3.5% 증가, 전월비 기준 1.2% 증가

**□ 고용 : 9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1.3% 증가**

- 9월 전산업 취업자는 SOC·기타서비스업 등에서 증가세가 비교적 견실한 흐름을 유지함에도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증가율이 1.3%로 하락

**□ 수출입 : 10월 수출 -14.7%, 수입 -14.6%, 무역흑자 54억 달러**

- 지난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4.7% 감소한 468억 달러, 수입은 14.6% 감소한 414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5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로는 13개의 주력품목 가운데 선박류와 컴퓨터를 제외한 11개 품목이 감소한 가운데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은 여전히 두 자릿수 감소세가 지속

# 1. 해외경제

□ 미국 : 9월 실물·체감지표 동반 부진, 3분기 성장률 1.9%로 하락

○ 9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체감지표들도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경기 약화를 시사. 3분기 성장률은 소비 둔화와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기비 성장률이 1.9%로 전분기보다 하락

- 산업생산은 GM 공장의 파업 영향으로 자동차 생산이 크게 감소(-4.2%) 하면서 2개월 만에 다시 감소 전환되고, 소매판매도 자동차·부품(-0.9%) 과 주유소(-0.7%) 등에서의 판매 감소 영향으로 7개월 만에 감소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2009.6월(46.3)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소비자신뢰지수도 현재 평가지수와 미래 기대지수가 모두 전월보다 떨어지면서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에 최저치
- 제조업의 일자리 수가 전월보다 2천명 감소하면서 6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이고, 경기선행지수는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
- 지난 3분기 소비 증가세 둔화와 기업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기비 성장률이 1.9%로 하락(전년동기비 성장률은 2016.4분기 이후 최저치)

##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8	2019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2.9	3.1 (2.7)	2.0 (2.3)	1.9 (2.0)					
산업생산	3.9	-0.5	-0.6	0.3	0.2	0.1	-0.2	0.8	-0.4
(IT 생산)	6.4	(1.9)	(-0.3)	(1.8)	(-0.2)	(0.6)	(0.6)	(1.1)	(0.2)
내구재수주	7.9	0.3	-3.5	2.2	-2.3	1.8	2.1	0.2	-1.2
소매판매	4.8	0.3	1.9	1.5	0.5	0.4	0.7	0.6	-0.3
소비자물가	2.4	0.2	0.7	0.4	0.1	0.1	0.3	0.1	0.0
실업률(%)	3.9	3.9	3.6	3.6	3.6	3.7	3.7	3.7	3.5
무역수지(10억US)	-627.7	-156.5	-163.3	-161.5	-55.8	-55.5	-54.0	-55.0	-52.5
ISM 제조업지수 <sup>1)</sup>	58.8	55.4	52.2	49.4	52.1	51.7	51.2	49.1	47.8
소비자신뢰지수 <sup>2)</sup>	130.1	125.8	128.3	131.7	131.3	124.3	135.8	134.2	125.1
경기선행지수 <sup>3)</sup>	110.1	111.5	111.8	112.0	111.8	111.8	112.2	112.0	111.9

자료 : 미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8월 소비 크게 증가, 日 정부 소비세 인상 부작용 제한적 예상

- 지난 8월 생산과 수주 등 기업들의 경영활동 지표들이 동반 감소한 반면, 소비는 소비세 인상(10월)을 앞두고 선구매 영향으로 크게 증가. 日 정부는 이번 소비세 인상(8% → 10%)을 단행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경감세율 도입 등 보완조치를 병행함에 따라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8		2019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국내총생산(GDP)	0.8	0.4	0.5	0.3					
광공업생산	1.0	1.3	-2.5	0.7	0.6	2.0	-3.3	1.3	-1.2
민간기계수주	5.1	-3.2	-3.2	7.5	5.2	-7.8	13.9	-6.6	-8.0
소매판매	1.7	0.7	-1.3	0.4	-0.1	0.4	0.0	-2.3	4.6
소비자물가	1.0	0.0	0.2	0.1	0.1	0.0	0.0	0.1	0.0
실업률(%)	2.4	2.4	2.4	2.4	2.4	2.4	2.3	2.2	2.2
무역수지(10억엔)	-1,225	-1,251	-563	-329	54	-970	588	-252	-144
경기선행지수 <sup>1)</sup>	100.0	98.2	96.3	94.8	95.9	95.0	93.6	93.7	91.7

자료 : 일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15년=100.

□ 중국 : 9월 실물지표 반등, 3분기 성장률 6%로 통계 집계 이래 최저

- 9월 생산과 소비, 수출 등 내·외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동반 확대되면서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인 반면, 투자는 전월보다 증가율이 약간 더 하락. 지난 3분기 성장률은 6.0%로 떨어지면서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정부 목표치(6.0~6.5%)의 하한선에 근접하면서 정부 대응 방향에 관심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18	2019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국내총생산(GDP)	6.6	6.4	6.2	6.0					
산업생산	5.7	6.5	5.6	5.0	5.0	6.3	4.8	4.4	5.8
고정투자(누계기준)	5.9	6.3	5.8	5.4	5.6	5.8	5.7	5.5	5.4
소매판매	8.3	8.3	8.5	7.6	8.6	9.8	7.6	7.5	7.8
소비자물가	2.2	1.8	2.6	2.9	2.7	2.7	2.8	2.8	3.0
수출(달러화기준)	9.2	1.0	-1.0	1.8	1.0	-1.3	3.3	-1.0	3.2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8월 실물지표 반등,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여전히 상존

- 지난 8월 역내 생산 및 소비가 동반 증가하면서 실물지표들이 반등하고, 경기체감지수도 3개월 만에 상승.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3개월 연기 합의(10.28일)와 영국 의회의 조기 총선 개최(12.12일) 등으로 불확실성 상존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8		2019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국내총생산(GDP)	1.8	0.2	0.4	0.2						
산업생산	0.9	-1.2	0.5	-0.6	-0.5	0.8	-1.5	-0.4	0.4	
소매판매	1.6	0.6	0.9	0.5	0.1	-0.3	0.8	-0.5	0.3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8	1.9	1.4	1.4	1.7	1.2	1.3	1.0	1.0	
무역수지(10억유로)	191.5	42.6	54.5	51.4	15.3	18.3	17.8	17.5	20.3	
경기체감지수 <sup>1)</sup>	111.2	108.8	106.0	104.1	103.9	105.2	103.3	102.7	103.1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강세·유가 상승 지속

- 지난 10월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과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등으로 달러화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혼조세를 보인다, 11월 들어 미·중 무역합의 기대감 등으로 美 금융시장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주요국 통화 대비 강세
- 10월말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와 미·중 무역합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유가는 일시 하락세를 보인 바 있으나, 11월 들어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과 미국의 원유 시추공 수 감소 지속(3주 연속) 등으로 상승 지속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19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8일
엔/달러	111.39	110.86	111.42	108.29	107.85	108.78	106.28	108.08	108.03	109.26
달러/유로	1.1371	1.1218	1.1215	1.1169	1.1373	1.1076	1.0982	1.0899	1.1152	1.1018
미 국채 (10년만기)	2.72	2.41	2.50	2.12	2.01	2.01	1.50	1.66	1.69	1.94
WTI유	57.2	60.1	63.9	53.5	58.5	58.6	55.1	54.1	54.2	57.2
두바이유	65.6	67.6	72.1	63.2	64.8	63.6	59.6	59.9	59.3	60.3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3분기 실질GDP 전기비 0.4% 증가, 소비·투자 동반 부진

○ 올 3분기 국내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세가 전분기보다 현저히 둔화되고, 건설투자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기비 0.4% 성장

- 민간소비는 내구재 소비,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에서 각각 증가함에도 전기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민간소비 0.7% → 0.1%, 설비투자 3.2% → 0.5%), 건설투자는 건물과 토목 건설에서 모두 감소하면서 5.2% 감소

###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GDP성장률	3.2	2.7*	1.7* (-0.4*)	2.0* (1.0*)	2.0** (0.4**)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2.8	2.8*	1.9* (0.1*)	2.0* (0.7*)	1.7** (0.1**)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16.5	-2.4*	-17.4* (-9.1*)	-7.0* (3.2*)	-2.7** (0.5**)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7.3	-4.3*	-7.2* (-0.8*)	-3.5* (1.4*)	-3.0** (-5.2**)	-	-	-	-
전산업생산지수	2.5	1.4*	-0.6 (-0.8)	0.4 (0.5)	0.5* (1.1*)	-0.9 (-0.7)	0.7* (1.6*)	0.0* (0.2*)	0.5* (-0.4*)
광공업생산지수	2.4	1.3*	-2.1 (-2.9)	-0.7 (1.4)	-0.8* (1.9*)	-2.7 (0.0)	0.6 (2.8)	-3.3* (-1.8*)	0.4* (2.0*)
제조업생산지수	2.2	1.2*	-2.1 (-3.0)	-0.8 (1.6)	-0.7* (1.8*)	-2.8 (0.1)	1.0 (2.8)	-3.3* (-2.0*)	0.2* (2.1*)
서비스업생산지수	1.9	2.1*	1.1 (0.3)	1.4 (0.0)	1.6* (0.9*)	0.1 (-1.1)	1.5 (1.2)	2.4* (1.1*)	1.0* (-1.2*)
소매판매액지수	1.9	4.2*	1.7 (1.3)	2.0 (1.0)	2.4* (0.2*)	1.2 (-1.6)	-0.3 (-0.9)	4.1* (3.9*)	3.3* (-2.2*)
설비투자지수	14.1	-3.7*	-19.6 (-5.4)	-8.7 (1.2)	-3.2* (1.9*)	-9.3 (0.1)	-4.9 (2.2)	-2.9* (1.6*)	-1.6* (2.9*)
건설기성액	10.1	-5.2*	-9.5 (1.8)	-6.4 (-1.8)	-7.6* (-4.1*)	-4.1 (1.5)	-8.1 (-4.6)	-7.4* (0.9*)	-7.4* (-2.7*)
동행종합지수(2015=100)	107.2	109.4*	109.8	110.4	111.1*	110.6	110.7*	111.1*	111.4*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1.1	100.5*	99.4	99.4	99.4*	99.4	99.3*	99.5*	99.5*
선행종합지수(2015=100)	109.3	112.8*	113.8	114.6	115.0*	114.7	114.7*	114.9*	115.4*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1.2	100.2*	99.0	98.9	98.4*	98.7	98.4*	98.4*	98.5*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 지난 9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생산이 감소 전환되면서 3개월 만에 전월비 감소세를 보이고, 소비 역시 감소 전환, 투자는 전월비 증가세 유지
  - 광공업생산은 기계장비(전월비 8.0%)와 자동차(5.1%) 등에서 증가하면서 전월비 2.0%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생산은 3개월 만에 감소 전환
  - 소매판매는 준내구재(전월비 -3.6%)와 비내구재(-2.5%), 내구재(-0.1%) 등 전 품목에서 감소한 영향으로 전월비 2.2% 감소, 설비투자는 기계류(7.0%)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전월비 증가세를 유지
  -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과 수입액 등이 감소한 반면에, 서비스업생산지수와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0.3% 상승, 선행종합지수는 코스피지수와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감소한 반면에, 건설수주액과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0.4% 상승

**□ 물가 : 10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2% 상승, 전년동월비 보합**

- 10월 소비자물가는 통신(전월비 -0.1%)을 제외하고 주택·수도·전기·연료(0.2%), 식료품·비주류음료(0.2%), 음식·숙박(0.2%), 교통(0.6%) 등 다수 부문에서 상승한 영향으로 전월비 0.2% 상승(전년동월비 0.0%)
- 9월 생산자물가는 서비스(전월비 -0.2%)에서 소폭 하락한 반면, 공산품에서 보합세(0.0%)를 보이고, 농림수산물(2.3%)과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1.1%) 등에서 동반 상승한 영향으로 전월비 0.1% 상승(전년동월비 -0.6%)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소비자물가	1.9	1.5	0.5 (-0.4)	0.7 (0.4)	0.0 (-0.1)	0.7 (0.2)	0.7 (-0.2)	0.6 (-0.3)	0.0 (0.2)	-0.4 (0.4)	0.0 (0.2)
근원물가	1.5	1.2	1.1 (0.4)	0.9 (0.3)	0.8 (-0.1)	0.8 (0.1)	0.9 (-0.1)	1.0 (-0.2)	0.9 (0.1)	0.6 (0.0)	0.8 (0.2)
생산자물가	3.5	1.9	0.3 (-0.5)	0.4 (0.5)	-0.5 (0.4)	0.4 (0.0)	0.1 (-0.3)	-0.3 (0.0)	-0.6 (0.2)	-0.7 (0.1)	-
근원물가	3.1	1.6	0.3 (-0.2)	0.3 (0.4)	-0.2 (0.0)	0.3 (0.1)	0.1 (-0.2)	-0.1 (0.0)	-0.2 (0.1)	-0.3 (0.0)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 3. 국내금융

#### □ 기업자금·가계대출 : 9월 기업대출 확대·가계대출 축소

- 9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이 전월 수준을 유지한 데다,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월비 증가폭이 확대  
(19.8월 +3.5조원 → 19.9월 +4.9조원, 대기업 +0.1조원, 중소기업 +4.8조원)
  - 중소기업 대출은 추석자금 수요와 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출 유치 노력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지속
  - 대기업 대출도 분기말 영향(대출 일시상황 등)에도 불구하고 소폭 증가
- CP는 전월에 이어 순상환 규모가 확대  
(19.8월 -0.1조원 → 19.9.1~20일 -1.3조원)
- 회사채도 전월에 이어 순발행 규모가 확대  
(19.8월 +0.1조원 → 19.9월 +0.6조원)
-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축소  
(19.8월 +0.5조원 → 19.9월 +0.1조원)

####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7		2018		2019			19.9월말 잔액	
	연중	9월	연중	9월	연중	7월	8월		9월
■ 은행 원화대출	38.1	5.0	42.7	4.2	37.7	1.5	3.5	<b>4.9</b>	861.8
(대 기 업)	-3.5	-0.9	5.0	-1.2	-2.1	-1.1	-1.9	<b>0.1</b>	152.6
(중소기업)	41.6	5.9	37.6	5.4	39.8	2.6	5.4	<b>4.8</b>	709.2
<개인사업자>	27.8	3.4	25.0	2.0	18.5	2.0	2.7	<b>2.4</b>	332.3
■ 회사채 순발행	-3.5	0.3	5.2	2.0	13.5	3.4	0.1	<b>0.6</b>	..
■ CP 순발행	2.3	-0.1	0.8	-2.2	1.4	1.3	-0.1	<b>-1.3</b>	19.7
■ 주식발행	13.9	0.7	10.1	0.6	4.2	0.6	0.5	<b>0.1</b>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19.9월중 금융시장 동향).

- 8월 은행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에서 증가폭이 동반 축소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  
(19.8월 +7.4조원 → 19.9월 +4.8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입주와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  
(모기지론 양도 포함 : 19.8월 +4.6조원 → 19.9월 +4.0조원)
- 기타대출도 추석 상여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  
(19.8월 +2.8조원 → 19.9월 +0.9조원)

###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7		2018		2019			19.9월말 잔액	
	연중	9월	연중	9월	연중	7월	8월		9월
은행 가계대출	58.9	4.9	60.8	5.1	39.4	5.8	7.4	<b>4.8</b>	867.0
■ 주택담보대출	37.2	3.3	37.8	3.7	30.7	3.7	4.6	<b>4.0</b>	638.6
■ 기타대출	21.6	1.7	22.6	1.4	8.7	2.2	2.8	<b>0.9</b>	227.2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19.9월중 금융시장 동향).

### □ 금리·환율 : 11월 초(11.1~11.8일) 금리 상승·원화 강세

- 국고채(3년) 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1.75~2.00% → 1.50~1.75%, 10.30일)와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 완화 등의 영향으로 일시 하락세를 보이다, 11월 들어 미·중 무역합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 전환  
(11.1일 1.47% → 11.8일 1.52%, 0.05%p 상승)
- 원/달러 환율은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시기 연장(10.28일)에 이어 미·중 무역합의 기대감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강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전망에 따른 위안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원화 강세)가 지속  
(11.1일 1,165.6원 → 11.8일 1,157.5원, 8.1원 하락)

###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17	2018				2019			
		2/4	3/4	4/4	1/4	2/4	3/4	10월	11.8일
국고채(3년)	2.08	2.12	2.01	1.82	1.69	1.47	1.30	1.47	1.52
회사채(3년,AA-)	2.63	2.77	2.45	2.29	2.16	1.97	1.80	1.97	2.02
CD(91일)	1.64	1.65	1.65	1.93	1.90	1.78	1.55	1.44	1.52
CP(91일)	1.79	1.82	1.82	1.97	1.98	1.92	1.72	1.65	1.65
원/달러	1,088.2	1,114.5	1,109.3	1,115.7	1,135.1	1,154.7	1,196.2	1,163.4	1,157.5
원/100엔	966.5	1,014.8	981.2	1,013.2	1,028.2	1,073.4	1,113.4	1,074.1	1,062.1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 4. 산업별 동향

##### □ 제조업생산 : 9월중 전년동월비 +0.2%, 전월비 +2.1%

○ 제조업생산은 의료정밀광학(전년동월비 -22.4%), 전자부품(-7.5%), 자동차(-3.2%) 등에서 감소세가 이어짐에도 기타운송장비(20.8%)와 반도체(9.7%), 기계장비(3.2%) 등에서 증가세를 보인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0.2% 증가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3.8%)에서 전월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중공업(0.4%)에서도 소폭 증가한 반면, 경공업(-0.9%)에서는 감소 지속

- 전월비 기준으로는 통신·방송장비(-16.4%)와 반도체(-1.7%) 등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기계장비(8.0%)와 자동차(5.1%), 전자부품(4.1%) 등 다수 부문에서는 증가한 영향으로 제조업 전체 기준 2.1% 증가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1.4)는 반도체와 식료품, 담배 등에서 상승한 반면, 기타운송장비와 전자부품, 자동차 등에서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2.2% 하락, 전월비 기준으로는 보합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3.7%로 전월비 0.8%포인트 상승, 재고출하 순환도는 출하 감소폭(-2.7% → -0.8%, 계절조정치, 전년동월비)이 축소된 반면, 재고 증가폭(6.1% → 8.5%)은 확대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5.6%로 전월보다 2.2%p 상승

##### □ 서비스업생산 : 9월중 전년동월비 +1.0%, 전월비 -1.2%

○ 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전년동월비 -4.3%)과 도소매(-0.1%) 등에서 감소한 반면, 보건·사회복지(4.6%)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3.7%), 금융·보험(2.7%), 정보통신(3.5%) 등에서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1.0% 증가

- 전월비 기준으로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1.1%), 부동산(1.3%), 보건·사회복지(0.9%) 등을 제외하고 도소매(-2.9%), 금융·보험(-1.8%), 숙박·음식점(-2.2%) 등에서 감소함에 따라 서비스업 전체 기준 1.2% 감소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3.5% 증가, 전월비 기준 1.2% 증가

## 산업별 생산 동향

(2015=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17년)	2017	2018	2019						
				1/4	2/4	3/4*	7월	8월*	9월*	전월비*
<b>광 공 업 (원지수)</b>	10,000	104.7	106.1	100.2	106.2	104.4	108.9	101.7	102.5	-
전년동기비 증감률	-	2.4	1.3	-2.1	-0.7	-0.8	0.6	-3.3	0.4	2.0
<b>제 조 업 (원지수)</b>	9,340.4	104.6	105.9	98.9	106.6	104.5	109.1	101.3	103.0	-
전년동기비 증감률	-	2.2	1.2	-2.1	-0.8	-0.7	1.0	-3.3	0.2	2.1
섬 유	136.7	-3.1	-6.7	-9.0	-7.5	-3.7	-2.7	-6.8	-1.4	2.4
화 학	831.5	3.5	2.3	-3.1	-6.1	-2.0	-1.2	-3.0	-1.5	1.6
철 강	604.5	1.6	-3.0	-2.4	-2.1	-2.7	-1.1	-4.9	-2.0	2.5
반도체	1,218.3	10.9	20.2	5.8	7.9	8.3	3.3	12.4	9.7	-1.7
컴퓨터, 주변장치	44.5	-10.2	-7.7	2.5	-6.8	-5.7	-2.6	-23.6	12.3	29.1
통신, 방송장비	144.7	-9.7	-7.1	-16.4	-8.4	3.1	-22.7	22.0	7.9	-16.4
의료, 정밀, 광학	186.1	19.1	15.1	-8.3	-11.5	-20.5	-13.3	-25.8	-22.4	5.6
기계, 장비	835.8	13.5	-2.9	-11.4	-6.8	-1.9	-4.5	-4.1	3.2	8.0
자동차	1,066.4	-2.7	-1.4	2.5	1.7	-0.5	14.1	-12.5	-3.2	5.1
조 선	221.1	-29.2	-13.5	9.6	22.2	24.2	26.6	17.6	28.2	2.7
- 중 공 업	-	2.6	2.2	-2.0	-0.8	-0.7	0.7	-2.9	0.4	0.6
- 경 공 업	-	0.1	-3.1	-2.3	-0.9	-1.1	2.4	-5.1	-0.9	-0.5
- 제조업ICT	-	7.1	11.3	-2.2	0.9	1.1	-3.2	2.7	3.8	2.2
<b>서비스업 (원지수)</b>	1,000	104.5	106.7	104.5	108.4	107.6	107.9	108.1	106.9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9	2.1	1.1	1.4	1.6	1.5	2.4	1.0	-1.2
도소매	211.3	0.7	1.5	-0.6	-0.1	0.4	-0.3	1.6	-0.1	-2.9
운수, 창고	90.3	1.6	2.1	1.2	-1.3	0.3	-0.2	1.4	-0.4	-1.1
숙박 및 음식점	61.6	-1.9	-1.9	-1.3	-1.3	-2.5	-2.6	-0.7	-4.3	-2.2
정보통신	79.9	1.6	1.4	3.0	3.9	3.3	3.8	2.6	3.5	0.1
금융 및 보험	140.9	5.1	5.8	1.0	1.1	4.4	4.4	5.9	2.7	-1.8
부동산	31.8	1.2	0.2	-2.9	-1.6	0.3	-0.1	0.8	0.4	1.3
전문, 과학 및 기술	71.0	-1.6	0.8	0.6	1.9	2.4	2.6	2.1	2.2	-1.5
사업시설관리 등	47.7	4.2	0.6	-0.2	3.0	3.2	3.8	1.9	3.7	1.1
교 육	106.0	0.0	0.1	-0.8	-0.9	-0.7	-1.2	-1.0	0.3	-0.4
보건 및 사회복지	94.3	6.6	5.6	8.4	9.8	5.6	7.2	5.0	4.6	0.9
예술, 스포츠, 여가	21.7	0.2	-0.6	2.3	0.3	-0.9	-0.9	2.9	-4.3	-4.2
협회, 수리, 개인	32.1	0.0	0.7	-2.2	-0.7	-2.6	-4.7	0.4	-3.3	-1.6
수도, 하수, 폐기물	11.4	0.4	3.0	-1.8	-3.2	0.6	-1.9	2.6	1.5	-4.2
- ICT서비스업	-	-4.3	9.7	-1.1	-4.3	9.7	2.7	4.0	3.5	1.2

자료 : 통계청.

주 : \*는 잠정치.

## 5. 고용

### □ 취업자 수 : 9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3% 증가

○ 9월 전산업 취업자는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비교적 견실한 흐름을 유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다시 확대된 여파로 인해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둔화(1.7% → 1.3%)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폭이 재차 확대(전년동월비 -0.5% → -2.5%)
- 반면에 농림·어업의 취업자는 전월보다 증가세가 확대(3.7% → 4.2%)되고, SOC·기타서비스업에서도 전월과 비슷한 증가율 수준(2.0% → 1.9%)
-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5개월 만에 다시 감소(1.3% → -1.9%)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도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0.9% → 0.3%)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부문은 금융및보험업(-5.3% → -5.0%)과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4.6% → -5.5%) 등에서 현저히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3% → 8.0%)과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5.5% → 7.5%),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3.4% → 4.3%) 등 다수 업종에서 비교적 견실한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확대(4.0% → 4.5%, 2002.7월 이후 최고치 증가율)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4%로 전월보다 상승

###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전 산업	26,725	26,822	26,461	27,256	27,382	27,322	27,408	27,383	27,358	27,404	
전년동기비	1.2	0.4	0.7	0.9	1.4	1.0	1.0	1.1	1.7	1.3	
농림·어업	0.5	4.8	9.6	1.2	3.9	1.1	1.6	3.7	3.7	4.2	
제조업	-0.4	-1.2	-3.1	-1.4	-1.7	-1.6	-1.5	-2.1	-0.5	-2.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6	0.5	1.1	1.4	1.8	1.5	1.6	1.6	2.0	1.9	
건설업	6.4	2.3	-0.4	0.0	0.0	0.3	1.1	0.6	1.3	-1.9	
도소매·음식숙박업	0.6	-1.9	-0.9	0.3	0.5	1.0	0.4	0.2	0.9	0.3	
전기·운수·통신·금융	-1.1	3.3	1.2	0.3	-0.8	-0.4	1.1	-0.4	-1.4	-0.7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2.1	0.7	2.6	2.7	3.9	2.7	2.5	3.3	4.0	4.5	
실업률 (계절조정, %)	3.7	3.8	3.9	4.0	3.5	4.0	4.0	4.0	3.1	3.4	

자료 : 통계청.

## 6. 수출입

□ 10월 수출 14.7% 감소, 수입 14.6% 감소, 무역수지 흑자 54억 달러

○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4.7% 감소한 468억 달러, 수입은 14.6% 감소한 414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5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 반도체 업황 부진과 유가 하락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지난해 10월 수출 호조(549억 달러)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큰 폭 감소하면서 11개월 연속 감소세

- 수입은 원유 수입액이 대폭 감소하고, 설비투자 감소 여파로 반도체 제조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두 자릿수 감소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65.6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17.9% 떨어지고, 도입물량도 17.6%나 감소하면서 금액 기준으로 32.4% 감소한 52억 달러를 기록

###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0월
수출	5,737 (15.8)	6,049 (5.4)	1,327 (-8.5)	1,386 (-8.6)	1,349 (-12.2)	461 (-11.0)	441 (-13.9)	447 (-11.7)	468 (-14.7)	4,529 (-10.3)
수입	4,785 (17.8)	5,352 (11.9)	1,237 (-6.6)	1,288 (-3.3)	1,249 (-4.1)	437 (-2.6)	425 (-4.3)	387 (-5.6)	414 (-14.6)	4,188 (-5.8)
무역수지	952	697	90	98	99	23	16	60	54	341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2) 10월 실적은 잠정치 기준.

□ 선박류와 컴퓨터 제외한 11개 주력 품목의 수출 감소

○ 반도체 : 스마트폰·PC의 고사양 탑재 증가 등 메모리 수요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들의 재고 영향으로 인해 D램 가격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지난해 10월 반도체 수출 역대 2위 기록에 따른 기저효과(116억 달러, 전년동월비 22.1% 증가) 영향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

- **자동차** : 최대 수출시장인 대미 수출 호조 영향에도, 미·중 무역분쟁의 기화 등에 따른 세계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신흥국 수요 감소 지속과 유럽 시장 위축, 지난해 10월 수출 호조(전년동월비 35.8%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소폭 감소
- **자동차부품** : 베트남 현지 기업들의 신차 양산으로 對아세안 수출이 증가함에도, 미국의 자동차 소비시장 정체 지속,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중국시장 침체 및 공유차량 확산 심화 등으로 수출이 감소
- **선박류** : 2017년 하반기 이후 선박 시황이 개선되면서 증가한 수주 선박이 본격적으로 인도되고 있으며, 주력 선종인 LNG 운반선과 탱커선의 인도가 증가한 데 힘입어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
- **디스플레이** : 해외 기업들의 신제품 판매 호조 영향으로 OLED 수출이 증가한 반면에, 출하량 감소 및 단가 하락으로 LCD 수출이 부진하면서 전체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
- **무선통신기기** : 해외 기업들의 신형제품 생산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부분품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교체주기 연장 추세와 글로벌 휴대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 전환
- **철 강** :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들의 물량 공급 확대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인한 수출단가 약세 지속, 전방산업(자동차, 건설 등)의 침체로 인한 판재류 수출 부진, 주요 시장인 북미 지역의 수입 규제로 인한 강관류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
- **섬 유** : 계절적 성수기(9~10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및 교역환경 악화 등으로 중국·동남아·유럽 지역으로의 섬유소재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이 감소
- **석유제품** :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 및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에 따른 석유제품 단가 하락, 중국 등 아시아 내 정제설비 증설에 따른 경쟁 심화, 정기보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



- **석유화학** :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수요 부진, 사우디 석유시설의 정상화에 따른 단가 하락, 정기보수 증가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 지난해 10월 석유화학 수출의 역대 최고 기록(45억 달러, 전년동월비 41.9%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
- **일반기계** : 카자흐스탄 내 대규모 석유화학 시설 투자로 인한 관련 기계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중국 건설기계 시장 둔화와 국내 기업들의 현지 투자 공장 가동 중단, 미국 내 신규 투자 감소, 지난해 10월 일반기계 수출의 역대 최고 기록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
- **가 전** : 우리나라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해외 현지에서의 우수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쿼터 소진, TV부문에서 중국·일본 기업과의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전체 수출이 감소
- **컴퓨터** : 서버 및 PC 시장의 위축, 낸드(NAND) 공급 초과 지속에 따른 수출단가 회복 지연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투자가 증가하면서 수출이 11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0월
자동차	3.8	-1.9	4.7	9.0	10.3	21.5	4.6	3.9	-2.3	6.8
자동차부품	-9.5	-0.1	3.0	-7.2	-0.6	1.4	-5.3	2.1	-6.3	-2.3
선박류	23.1	-49.6	-24.6	49.3	39.2	-7.2	168.6	30.9	25.7	12.9
일반기계	11.4	10.2	0.5	0.4	-4.3	-5.0	-6.2	-1.5	-12.1	-2.4
철 강	20.0	-0.7	-1.8	-8.1	-17.5	-21.8	-19.9	-9.1	-11.8	-9.7
석유화학	23.5	11.9	-10.3	-15.9	-16.4	-12.5	-19.5	-17.6	-22.5	-15.1
석유제품	32.0	32.3	-4.2	-12.7	-14.8	-9.6	-15.9	-18.4	-26.2	-12.8
섬 유	-0.5	2.5	-7.0	-8.5	-8.6	-6.7	-13.2	-5.8	-6.8	-7.9
가 전	-22.1	-18.3	-6.1	-2.3	-1.4	2.2	-7.1	0.3	-6.5	-3.7
무선통신기기	-25.5	-22.7	-27.2	-21.0	-16.9	-30.6	-18.9	1.0	-6.7	-20.0
컴퓨터	9.5	16.9	-33.7	-36.5	-24.7	-24.1	-31.7	-18.5	7.7	-28.1
반도체	57.4	29.4	-21.4	-23.6	-30.3	-28.1	-30.7	-31.6	-32.1	-26.0
디스플레이	9.0	-9.9	-11.6	-13.8	-19.9	-18.3	-23.7	-17.2	-22.5	-16.3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 10월 실적은 잠정치 기준.

<b>부 록</b>	<b>미국 민간소비의 호조 배경 및 향후 여건 점검</b>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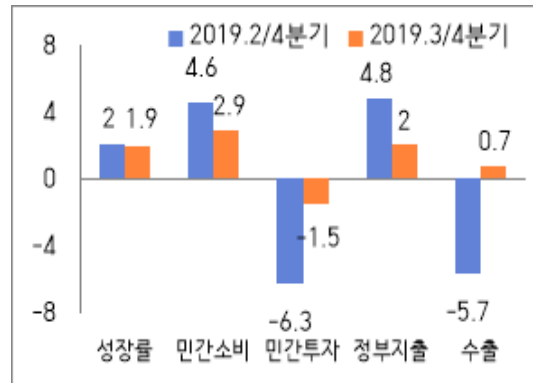
한국은행(2019.10.31일)

**□ 검토 배경**

- (미국 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 호조 등에 힘입어 여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양호한 성장 흐름을 지속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미국의 주요 지출부문별 증가율

	2018	2019 <sup>e</sup>	2020 <sup>e</sup>
미 국	2.9	2.4	2.1
유 로	1.9	1.2	1.4
일 본	0.8	0.9	0.5
영 국	1.4	1.2	1.4



자료 : IMF.  
주 : 2019~20년은 전망.

자료 : BEA.  
주 : 전기비 연율.

- (미국 경기의 위축 가능성)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으로 세계 교역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최근 장·단기금리 역전 등을 계기로 미국 경기의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최근 미국경제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민간소비의 동향 및 호조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하여 검토

**□ 민간소비 호조 배경**

- 미국의 민간소비 호조세는 ▲ 가계 소득여건 개선 ▲ 양호한 가계 재무구조 ▲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소비 여력이 확충된 데 기인

**① 가계 소득여건 개선**

- 근로소득 증가 : 최근의 민간소비 호조세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가계 소득여건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소비 여력이 확충된 것이 크게 작용
- 고용시장 호조 : 미국의 가계 소득여건이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개선된 것은 일자리 증가, 임금상승 등 고용시장 호조에 기인

## ② 양호한 가계 재무구조

- 가계 부채부담 완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과 저금리 기조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등 소비 여력 측면에서 가계 부채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
- 자산 측면에서의 소비 여력 확대 :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주식 등 자산시장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가계의 자산 규모 및 관련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 여력이 확충

## ③ 확장적 재정정책

-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와 고용 증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민간소비 확대에 기여

### □ 향후 소비 여건 : 주요 리스크 요인

- 미국의 민간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서 ① 고용시장 위축 ② 미·중 무역갈등 ③ 주택시장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이 거론
- (고용시장 위축 가능성) 최근 일부 고용시장 지표들의 둔화로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었으나, 당분간은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
- (미·중 무역갈등 심화 가능성) 최근 미·중 무역협상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향후 갈등 심화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금융시장과 수입물가, 경제주체 심리 등을 통해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주택시장 경기 둔화 가능성) 지난해부터 주택시장 경기가 약화 조짐을 보이고 주택투자도 감소하면서 민간소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

### □ 종합 평가

- (완만한 성장세 예상)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 호조를 바탕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경기 변동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민간소비와 연관된 리스크 요인을 주목할 필요
- 미국 민간소비의 향방에 따라 우리 경제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향후 둔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 11.11 )	( 11.12 )	( 11.13 )	( 11.14 )	( 11.15 )
● 9월 기계수주		 9월 산업생산  10월 소비자물가  10월 고용동향	● 19.3분기 실질GDP (잠 경 치) ● 9월 소매판매수  10월 산업생산  10월 소매판매  10월 고정투자  19.3분기 실질GDP (수 경 치)	● 9월 산업생산(수)  10월 소비자물가(수)  9월 수출입통계  10월 소매판매  10월 산업생산
( 11.18 )	( 11.19 )	( 11.20 )	( 11.21 )	( 11.22 )
		● 10월 무역수지(잠)  10월 생산자물가	 10월 경기선행지수	● 10월 소비자물가
( 11.25 )	( 11.26 )	( 11.27 )	( 11.28 )	( 11.29 )
● 9월 경기선행지수 (수 경 치)	 11월 소비자신뢰지수	 19.3분기 실질GDP (수 경 치)  10월 내구재수주잠  10월 개인소비  11월 소비자신뢰지수	● 10월 무역수지(수) ● 10월 소매판매(잠)  11월 경제체감지수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 10월 실 업 률 ● 10월 산업생산(잠)  11월 소비자물가(예)  10월 실 업 률  10월 산업활동동향  금융통화위원회
				( 12.1 )
				 11월 수출입통계
( 12.2 )	( 12.3 )	( 12.4 )	( 12.5 )	( 12.6 )
 11월 ISM 제조업지수  11월 소비자물가	 19.3분기 실질GDP (잠 경 치)	 11월 ISM 비제조업지수	 9월 소매판매  19.3분기 실질GDP (예 비 치)  9월 무역수지	● 10월 경기선행지수 (잠 경 치)  11월 고용보고서